

“임기전, 공공임대 40만호 달성”

서울시 청년월세사업에 목표치 7배 신청

박원순 시장 민선7기 2년

서울내 주택 10%, 공공임대로 서울시, 부시장 5명 체제 운영 차기 대선, 아직 논의 단계 아냐

박원순 서울시장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울시의 핵심 정책으로 공공임대주택 대규모 확충을 꼽았다.

박원순 시장은 6일 오전 시민청 태평홀에서 민선7기 2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 임기가 끝나는 시점(2022년 6월 말)이 되면 서울이 40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갖추게 되며 이 정도면 380만호의 10%가 넘는다”며 “다음 시장이 똑같이 노력하면 또 10년 후면 공공임대주택이 서울시 주택의 20%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또 하나 만들어낸 획기적인 방식이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서울시의 ‘전세보증금 이자지원’ 제도를 거론하고 시가 이자만 부담하면 되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로 인해 월세나 전세 등이 급등하는 일을 막기 위해, 베를린의 경우처럼 서울시에게 월세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얘기해 왔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강남에 아파트를 하나 사서 10년 동안 10억이 올랐는데 세금은 150만 원 내는 이런 세상을 우리 청년 세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국민



박원순 서울시장 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태평홀에서 열린 민선7기 2주년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이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이 부분은 세계 혁신이라든지 공공임대주택 공급이라든지 다양한 방법들 통해서 해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한민국에 3000조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유동성 자금이 돌고 있다며 “이런 돈을 국가나 지방정부가 펀드로 흡수해서 공공임대주택, 바이오메디컬 산업 등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앞으로 서울시를 부시장 5명 체제로 운영하기 위한 대비 차원에서 김병관 전 의원을 포스트코로나 민생특별경제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등 비법정 기구 특별위원장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공식 직제상 서울시 부시장은 행정1·2부시장과 정무부시장 등 3명이다.

법정 기구가 없는 상태로 ‘부시장 5명 체제’를 미리 운영하는 것과 관련해 박 시장은 “(특별위원회들이) 법적 기

구는 될 수 없다”며 “그래서 (특별위원회 장들이) 명예부시장으로서 역할을 실질적으로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차기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통령직은) 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안 되고 싶어도 하게 되는 운명적인 직책”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레임덕 없이 5년을 제대로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내년쯤 되면 대선에 대한 논의나 이런 게 훨씬 더 활발하게 이뤄지겠지만 아직은 이 단계에서는 자제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그는 “지지율이라는 것은 언제나 변동하는 그런 것”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본분을 철저히 제대로 하고 있으며 그런 성과나 진정성을 시민들이 알아주는 거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신청자 임차보증금 현황〉 (단위:명)



1인 가구 청년 5000명에게 월세 20만 원을 가장 10개월간 지원하겠다고 서울시가 올해 처음 시작한 정책에 모집 대상자의 7배 가까운 인원이 몰렸다.

서울시는 ‘청년월세’ 사업에 3만4201명이 신청서를 냈다고 6일 밝혔다.

시가 지난달 16~29일 받은 신청 내용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신청자 평균 소득은 131만6000원, 평균 지출 월세는 37만3000원이었다. 여성이 62.3%를 차지해 남성보다 많았다.

연령대는 25세 이하 40.2%, 26~30세 40.7%, 31~35세 13.5%, 36~39세 5.6% 등이다.

직업군은 사무직이 25.5%로 가장 많고 무직 19.3%, 학생 17.6%, 판매·영업·서비스 16.5%, 전문·자유직 15.4%

로 나타났다. 서울에서 고시원이 가장 많은 관악구 신청자가 19.2%로 가장 많았고 광진구 6.6%, 동작구 6.3%, 마포구 5.7%, 성북구 5.3% 순이었다.

시는 내달 중 지원 대상 선정을 마치고 9월부터 월세 지급에 들어간다.

/김현정 기자

올 상반기 노후경유차 3만여대 저공해조치

서울시, 5등급車 운행제한 시범운행 12월부터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에 노후 운행차(건설기계 포함) 3만여대에 대한 저공해 조치를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라 시는 지난 3월 31일까지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시범 운영한 바 있다.

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다시 시작되는 올해 12월부터 운행 제한을 본격 시행해 단속을 진행할 방침이다.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긴급 차량과 장애인 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매년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종은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단속이 유예된다.

시는 올해 매년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 등 저공해사업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저공해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 제한과 녹색교통지역 운행 제한, 계절관리제 운행 제한에서 제외된다.

시는 대기질 개선 효과가 큰 조기폐차 유도를 위해 폐차 보조금을 기존 최대 165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했다. 이날 시에 따르면 1만4368대는 조기 폐차했고 1만6109대에 매년저감장치를 부착했다.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신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문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로 전화하면 된다. /김현정 기자

예산 아낀 시민·공무원에 인센티브 지급

서울시 공무원 예산절감 우수사례 26건 시민 80만원 공무원 7400만원 성과금

서울시가 예산 누수를 막는데 기여한 시민과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로 상반기 748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시 예산 절감에 보탬이 된 시민에게 80만원, 공무원에게 7400만원의 예산성과금을 지급했다.

예산성과금은 예산을 절약했거나 세입원 발굴, 제도 개선으로 수입을 증대한 공무원과 시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로 지난 2001년 도입됐다.

시는 “예산 절감이란 예산의 편성부터 집행과 사후관리 등 재정운용 전반에 걸쳐 각종 낭비 요소를 없애거나 불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요불급한 경비를 절감해 지방세, 세외 수입으로 재원을 확충하는 것”이라며 “시민들이 예산 낭비를 신고하거나 예산 절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직접 제시함으로써 서울시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6월 시가 선정한 시민 신고 우수 사례는 총 6건이다. 서울 도봉구에 사는 이모 씨는 따름이 이용 내역을

카카오톡 알림톡이나 문자메시지 대신 휴대폰 앱의 푸시를 활용해 예산을 아끼자고 제안해 2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같은 기간 서울시 공무원의 예산 절감 우수 사례는 총 26건이다.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는 시내버스 잉여 예비 차량 보유비를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25억5182만원을 절약, 성과금으로 1200만원을 수령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부동산 취득 후 신탁재산의 법적 허점을 악용한 지방세 체납 사례에서 과세 재산의 실소유권자가 신탁회사가 아닌 체납자임을 소명해 체납세금 161억원을 징수했다. 이에 따른 세입증대액은 133억1835만 4000원으로, 시는 38세금징수과에 1000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김현정 기자

김포시, 경기도 체납자실태조사 ‘최우수’

김포시가 경기도의 2020년(2019년 실적) 체납자실태조사 시·군 평가에서 ‘최우수상’과 3000만 원의 시상금을 수상했다.

체납자실태조사란, 체납자의 체납 사유를 조사하고 맞춤형 징수 및 생계형 체납자를 복지연계하는 민선7기 도시사업으로 2019년부터 경기도 31개 시·군이 일제히 실시하고 있다. 올해 처음 실시한 이번 평가는 2019

년도 조사원 채용, 실태조사 실적, 체납징수 및 복지연계 실적에 대해 평가하는 것으로 경기도내 31개 시·군의 선의의 경쟁과 도정시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이뤄졌다.

김포시는 작년 3월 체납관리단을 출범해 3인 1조로 구성된 조사원이 김포시 전역을 방문해 체납사실을 안내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복지 및 일자리를 연계하고 있다. /김포(경기)=안성기 기자

과주시, 무더위쉼터 172개소 확대 운영

경로당 폐쇄에 따른 대안 마련

과주시는 노인, 장애인 등 폭염에 취약한 계층이 온열질환 없이 안전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실내 무더위 쉼터 326개소 외 에 추가로 야외 무더위 쉼터 172개소를 확대 지정한다고 6일

밝혔다.

과주시는 폭염에 대비해 기존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326개소의 사전점검을 완료하고 운영을 준비해왔으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장기 휴관상태가 지속됨에 따라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다가올 폭염에 대비해 쉼터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과주시 노인장애인과, 공원녹지과,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등 관련부서와 폭염대응TF팀을 구성해 취약계층 안전대책을 마련했다.

따라서 추가 지정되는 야외 무더위 쉼터에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평상과 대형선풍기 등을 설치하고 사용자들에게 쿨스카프, 생수, 얼음팩 등 냉방용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파주(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오늘의 날씨

7월 7일 (화)

음력 : 5월 17일

수도권 날씨

28~21°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이출 지수: [Progress Bar]

해돋이 / 05:18 | 해질 / 19:56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